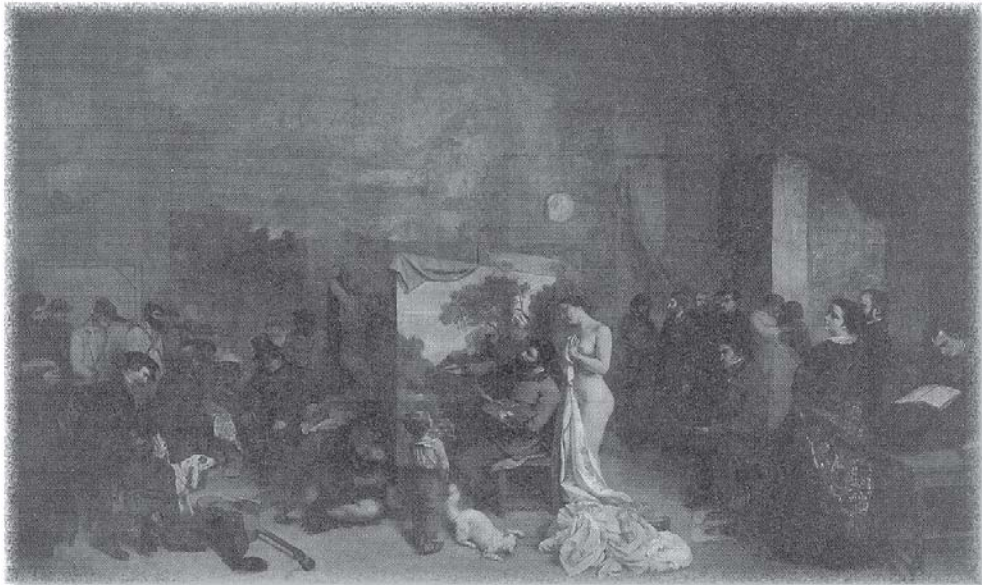




〈화가의 아틀리에〉-1855년, 캔버스에 유채, 359* 598,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

- 사회 개혁을 꿈꾸었던 화가 쿠르베 - 박재현 작가

누구나 꿈꾸던 이상의 세계를 펼치고 싶지만 살다보면 그것은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된다. 꿈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점점 더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적인 삶보다는 평범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만 있다면 사회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현실보다는 신념에 따라 행동했던 화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쿠르베다. 사회 개혁을 꿈꾸었던 쿠르베는 그림으로 자신의 이상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실천했다.

쿠르베의 신념이 드러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 〈화가의 아틀리에〉이다.

이 작품의 원제목은 〈내 예술인생 7년을 종합하는 실제 우화〉로 쿠르베는 “이 그림 속 인물들은 나를 도와주고 내 생각을 지지하고 내 행동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삶과 죽음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지. 이것은 상층계급과 중층계급, 하층계급의 사회라네. 한마디로 욕망과 정열 속에서 몸부림치는 현실 사회를 바라보는 나의 방식이지.” 라며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이 작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대작으로 풍경을 그리고 있는 쿠르베가 화면 중앙에 있고 그림을 바라보는 누드모델과 어린 소년이 그 옆 있다. 풍경화는 쿠르베가 즐겨 그렸던 장르로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행위는 화가가 자신의 작품을 창조하는 순간을 상징한다. 또한 누드모델은 화가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이지만 이 작품에서 이상화된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현실의 여자를 묘사함으로써 현실만 그린다는 쿠르베의 사실주의에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왼쪽에 남루한 옷을 입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여인, 밀렵꾼, 어두운 옷을 입은 랍비 등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이 있다. 그들은 오른쪽 유명 인사들과 다르게 누구인지 구별할 수 없게 어둡게 묘사했다. 쿠르베는 사실주의에 입각해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쿠르베는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사냥총을 들고 있는 남자가 나폴레옹 3세다며 맨 왼쪽에서 있는 사람이 국방장관 아쉴드 폴드, 성직자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수구 왕당파의 저명한 가톨릭 언론인 등 혁명가를 묘사함으로써 서로 다른 계층 간의 갈등을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쿠르베의 친구이자 사회의 영향력이 있는 지식인들을 그려 넣었다.

화면 오른쪽 끝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시인이자 문학인 보들레르다. 그는 미술평론가로서 근대 회화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그 옆에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문인이자 언론인인 샹플뢰리, 사회주의자이자 무정부주의자였던 프루동 등 지식인들이다. 쿠르베는 지식인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정치적 유대감을 강하게 표현했다.

이 작품에 대해 쿠르베는 친구 샹플뢰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급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오르낭의 장례식〉-1849년, 캔버스에 유채, 314*663, 파리 오르세 미술관 소장

‘생명을 먹고 사는 사람들’ 입을 밝혔으며 왼쪽의 인물들은 ‘죽음을 먹고 사는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을 그린 것이라고 했다.

쿠르베의 이 작품속의 인물들은 어떤 상호연관성이 없고 서로 단절되어 있지만 그가 진정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노동자들이다.

살롱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쿠르베는 1855년 나폴레옹 3세가 파리에서 개최한 만국박람회에 사실주의적 새로운 작품 13점을 출품하지만 주최 측에 의해 거부당한다. 특히 낭만적인 정서를 배제하고 농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림들 때문이었다. 매사에 자신감이 넘쳐흘렀던 쿠르베는 살롱전의 거부에 굴복하지 않고 얼마 광장에 위치한 화실에서 자비를 들여 개인전을 연다.

전시회에서 사실주의 논쟁을 일으켰던 작품이 〈오르낭의 장례식〉이다. 이 작품은 산골 마을 농민들의 평범한 장례식을 표현했다.

화면 왼쪽에는 장례식을 주관하는 성직자와 남자들이, 오른쪽에는 검은 색 상복을 입은 여자들이 서 있다. 화면 중앙에는 매장을 하기 위해 인부들이 모여 있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는 여자들은 죽은 사람의 가족들을 나타내며 침울한 표정으로 그들 뒤에 서 있는 여자들은 이웃들이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자들과 어모자로 얼굴의 반을 가린 남자들의 모습은 죽은자에 대한 슬

품을 의미한다.

신부의 시중을 들고 있는 소년의 지루한 표정은 슬픔을 참고 있는 농부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작품은 실물 크기의 인물들이 40여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쿠르베는 쥐라 산중의 오르낭 마을에 있었던 농민들의 장례식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묘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을 아틀리에에 하나씩 불러서 그렸다.

농민의 장례식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작품의 부제는 〈오르낭에 있어서 어떤 매장의 역사화〉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 것처럼 가난한 농부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어났다. 쿠르베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이 작품으로 프랑스 화단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하지만 이때부터 문학, 미술에 있어서 사실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게 되면서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과 보르레르의 〈악의 꽃〉이 부도덕과 반종교적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쿠르베의 사실주의는 서서히 젊은 화가들에 의해 결실을 맺기에 이른다.

귀스타브 쿠르베(1819~1877)는 프랑스 오르낭 지역의 부유하고 교양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가족들의 기대대로 법률가가 되기 위해 가톨릭 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 18세 때 미술 시간에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격적으로 그림을 공부하기 위해 파리에 온다.

쿠르베는 파리에서 루브르 박물관을 찾아다니면서 거장들의 작품을 연구하고 모사하면서 그림에 대한 안목을 넓혀나가기 시작한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펼쳐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던 쿠르베는 파리에 온지 4년 만에 드디어 살롱전에 입상하는 영광을 얻는다. 살롱전에 입상으로 쿠르베는 네덜란드를 여행할 수 있는 후원자는 만나게 된다. 네덜란드 여행에서 쿠르베는 렘브란트와 프란스 할스의 작품을 보고 크게 영향을 받아 풍경이나 인물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하기에 이른다.

쿠르베는 누드, 풍경, 초상화, 정물 등 다양한 장르에서 예술적 감성을 드러내지만 사회주의자 프뤼동에 영향을 아 공산주의에 심취하게 된다.

쿠르베는 ‘나는 사회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요, 공화주의자이다. 한마디로 말해 혁명의 지지자이다.’ 라며 쿠르베는 자신이 혁명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작품에 가난한 농부나 노동자를 등장 시키기 시작한다.

쿠르베는 1848년 혁명과 제2공화정을 짓밟아버린 나폴레옹 3세에게 반발을 느껴 정치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는 그림을 뛰어 넘어 소외 받는 민중의 해방을 위해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열정적으로

기존의 정치세력과 싸운다.

1871년 파리에서 일어난 폭동은 파리 코뮌을 성립시켰고 쿠르베는 그 일원으로 가담하게 된다. 쿠르베는 예술가 협회 대표자로 임명되어 루브르 미술관을 관리하는 총책임을 맡기에 이른다.

하지만 정치 소용돌이는 쿠르베의 열망을 저버린다. 정부군에 의해 코뮌이 무너지자 그 중심에 있었던 쿠르베는 체포된다. 쿠르베는 재정을 타파하려는 공화당 측이 파괴한 방돔 기념주(나폴레옹 1세의 의해 건립된 기념물) 사건의 전 책임을 물게 된 것이다.

쿠르베는 노동자들의 희망에서 기존 정치인들의 증오의 대상으로 변한 것이다. 그것은 쿠르베의 예술성보다는 그의 인간성에 대한 증오였다. 쿠르베는 3개월간의 감옥 생활에서 벗어났지만 정치 가담은 무리한 벌금형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그의 경제적 파산으로 이어진다.

쿠르베는 예술가의 삶보다 사회개혁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그에게 돌일 킬 수 없는 파란만장한 삶을 선사한 것이다.

결국 쿠르베는 정치적 행적으로 인해 고향에서 탈출해 스위스로 망명한다. 말년에 쿠르베는 그곳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무절제한 생활을 하면서 객사한다.

하지만 쿠르베는 정치적 행보와 달리 평범한 현실을 이상화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사실적으로 재현함으로써 프랑스 미술에 사실주의를 정립시켰다.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재정과 지방세”는 지방재정·세제가족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교양지로서 아래와 같이 지방재정·세제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세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나 사례, 수기 등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제안·논문

지방재정·세제발전과 업무개선에 관한 의견

■ 우수사례

각 자치단체의 독특한 재정·세제활동이나 우수사례로 널리 홍보하고 싶은 내용

■ 수필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어려움 그리고 지방재정·세제인의 가족으로서 느끼는 생활이야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략기획실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3-42
지방재정회관 (우)121-719
Tel : 02)3274-2013
Fax : 02)3274-2009
E-mail : lsy1296@klfa.or.kr

“지방재정과 지방세”지에 실린 원고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과 지방세

2011년 7월호
(통권 제 43 호)

발행인 이상복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편집인 이주석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편집위원 광채기 | 동국대학교 교수
김대영 | 전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완규 | 중앙대학교 교수
손희준 | 청주대학교 교수
안경봉 | 국민대학교 교수
유경문 | 서경대학교 교수
유태현 |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삼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만수 | 한양대학교 교수
최진혁 | 충남대학교 교수
(이상 가나다순)
손육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임이사
조봉업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이우중 |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장
변성완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구본근 | 행정안전부 공기업과장
이보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전동훈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진명기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장

발행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발행일 2011년 7월 일

디자인·인쇄 사회문화사 (02-2263-0523)